20세기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의습선

Drawing Lines in Clothing on the 20th Century Fashion Illustration

윤을요

국민대학교 조형대학 의상디자인학과

Eul-Yo Yun(yoyo@kookmin.ac.kr)

요약

사진기술의 발달은 한 때 융성했던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판도를 바꾸어 놓았으며, 컴퓨터 기술의 발달은 사진이 갖는 한계성을 재편집하기에 이르렀다. 이제 사진과 일러스트레이션은 컴퓨터라는 매체를 통해 그 경계를 허무는 상황에 이르렀고, 이러한 현상은 과거 전통적인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이 갖는 표현적인 특징에 고무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이 같은 시대적 요구를 기초로 20세기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서 나타난 의습선에 대한 표현적 특징에 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연구의 내용은 첫째, 의습선의 개념을 이해하며, 둘째, 동.서양의 회화에서 나타난 의습선의 특징을 고찰하며, 셋째, 20세기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흐름을 파악하고, 넷째, 20세기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서 나타난 의습선의 특징을 연구 분석하는데 있다.

■ 중심어 : | 패션일러스트레이션 | 의습선 | 독창적 스타일 |

Abstract

The development of photography technology has changed the domain of fashion illustration that once prospered while the improvement of computer technology can now reedit the limits of photos. Presently, the border between photography and illustration has been collapsed through a medium of computer. And this phenomenon tends to be encouraged by expressive features that traditional fashion illustration was characterized by.

Thereupon,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expressive features of drawing lines in clothing on the 20th century fashion illustration based on such periodic demand.

Therefore, this paper deals with the followings: the first is to understand the concept of the drawing line in clothing ; the second is to consider the features of drawing lines in clothing on the Eastern and Western paintings; the third is to figure out the flow of the 20th century fashion illustration; the fourth is to analytically study the features of drawing lines in clothing shown on the 20th fashion illustration.

■ keyword : | Fashion Illustration | Drawing Lines in Clothing | Original Style |

I. 서론

컴퓨터 프로그램의 발달과 기술의 성장은 정보수집과 운용에 관한 편리성, 융통성, 접근의 용이성이라는 이점을 가져다주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분야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다.

과거, 사진기술의 발달로 침체되었던 일러스트레이션 분야는 아이러니하게도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와 같은 첨단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재창조되고 있다.

아울러 사진의 최대 장점이었던 실사에 대한 복제는 사용자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 재 조작, 편집되어 사용되기에 이르렀으며, 현대인의 아날로그적인 감성과 취향은 과거 수작업에 대한 선호현상으로 이어지면서 이제 일러스트레이션은 21세기에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

결국 오늘날 컴퓨터는 사진과 예술 사이에 위치함으로써 관찰자와 이미지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창조해낸다. 이제 많은 일러스트레이터가 작업의 과정에서 사진과 컴퓨터를 도구적인 용도로 혹은 작품의 내용으로 혼합하여 사용함으로써 이제 사진과 컴퓨터, 그리고 일러스트레이션의 경계는 무너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적인 현상에 대한 이해와 21세기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 대한 관심 확대에 기초할 때, 20세기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 대한 연구는 의미가 있는 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20세기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서 나타난 의습선을 기초로 묘사법에 관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표현적 특징을 연구하는데 있다.

먼저, 연구 대상은 세계적인 패션 일러스트레이터의 작품을 중심으로 하며, 20세기 100년간의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서 나타난 의습선에 관한 내용을 연구의 범위로 설정하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 및 내용은 첫째, 전통적인 동양 의습묘법에 관한 문헌을 중심으로 의습선에 관한 특징을 고찰하고, 둘째, 20세기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 관한 문헌 자료를 중심으로 20세기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특징적인 내용을 파악하며, 셋째,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작품을 중심으로 20세기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시대별 의습선에 관한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II. 의습 묘선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의습선의 개념

의습선이란 복식의 주름 선으로 그림에서 나타나는 복식선 묘사법에 관한 내용이다. 예로부터 동양은 붓을 이용한 다양한 운필법이 발달했으며, 서양에서는 다채로운 드로잉 선이 발달했다. 실제로 동.서양에 구분없이 선은 회화에서 더없이 중요한 요소로 활용되었으나, 색면의 표현과 원근 및 명암법에 관심이 많았던 서양화¹⁾에 비해 동양화는 선과 여백, 먹의 농담으로 표현되는 회화에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에 다양한 운필법에 대한 체계와 구분은 동양의 사유적이며 관념적인 정서와는 다르게 분석적이며 경험적이라고 할 수 있다.

2. 동.서양 의습선의 표현적 특징

실제로 의습선에 관한 표현에 있어서 동양과 서양의 묘사법에는 유사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먼저 의습선에 대한 체계로서 전통적으로 활용되어왔던 동양의 18종 의습 묘법을 기초로 그 내용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표 1]은 동양의 인물화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의습선에 관한 내용으로 그 종류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첫째, 고고유사묘는 실이 노니는 듯하다는 의미에서 명명된 선묘로, 건포의 부드럽고 유연한 의습선을 표현하는데 사용되었으며 둥글고 유연한 의습문을 치칭하는 묘법이며, 둘째, 금현묘는 거문고 현과 같은 가늘고 긴 선이 완만한 속도와 느낌으로 꺾임과 치솟음, 두드러짐이 없이 연이어 늘어진 필법이며, 셋째, 철선묘는 송곳과 같은 뾰족한 쇠붙이로 그려 놓은 선처럼 강한 맛을 주어 명명된 묘법으로 굳세며, 강건해서 비 유동적인 선으로 뻗뻗한 의습선을 표현하는데 적절한 표현법이다. 넷째, 행운유수묘는 길게 늘어진 의습선이 바람에 날리는 형태를 표현하는데 적절한 운필법, 다섯째, 마황묘는 방아개비의 다리과 같다고 하여 명명된 것으로, 뻗뻗한 직물의 의습을 표현하는데 쓰인 묘법이다.

여섯째, 정두서미묘는 강하게 찢고 서미로 마무리하는 강한 선이 특징이며, 난잎을 치는 요령으로 그린 묘법이다. 일곱째, 혼묘는 파묵법의 일종으로 담묵에서 중

1) E.H. 폼브리치, 서양미술사, 열화당, 1996, pp.67~299

농묵으로 단계적인 농묵의 농담변화로 자연스러운 강조의 효과가 있는 묘법이다. 여덟째, 꺾두정묘는 막대기를 땅에 대고 그은 선으로 가장 강한 느낌의 운필법으로 초의에 많이 사용되었다. 아홉째, 조의묘는 얇은 건포의 의습선을 표현하는데 적절한 필법으로 인체 근육의 양감과 형태, 그리고 기세의 느낌을 굵이치는 유연한 곡선으로 표현하는데 사용되었다. 열 번째, 절로묘는 꺾어진 갈대 잎처럼 가늘고 긴 침필로 필의 방향을 바꾸어 꺾는 운필법으로 굳세고 날카로운 필치와 변화가 돋보이는 묘법이다. 열한 번째, 감람묘는 운필의 형세가 감람열매와 비슷하다 하여 명명된 것으로 붓을 비틀리듯이 눌러면서 붓의 획을 다음 획으로 잇는 것이 특징이며, 이러한 강약과 변화는 운동감이 큰 묘법으로 사용되었다. 열두 번째, 조핵묘는 기필의 흔적이 대추씨 같아하여 칭해진 명칭으로 단단하고 짧은 점들이 연속된 묘법이다. 열세 번째, 유엽묘는 일명 난엽도라 칭해지듯이 부드러운 버들잎 같은 선의 묘법으로 두터우면서 부드러운 옷감을 표현하는데 적당한 묘법으로 사용되었다. 열네 번째, 죽엽묘는 대나무잎을 그리는 듯한 운필법으로 마직물과 같은 뽀뽀한 의습선을 표현하는데 적당하여 범의를 표현하는데 주로 쓰였다.

열다섯 번째, 전필수문묘는 필이 가늘고 단단하여 파도 주름처럼 굴곡감을 주며 떨리면서 끝아가는 필법으로, 마포나 범의를 표현하는데 적당하였다. 열여섯 번째, 고시묘는 필세가 날카로우며 마른 나뭇가지 같다는데서 얻어진 이름으로, 빠르고 거칠게 구사되는 선은 승려복에 많이 쓰였다.

열일곱 번째, 구인묘는 지렁이가 지나간 자국 같은 선묘를 칭하며, 필압은 강하나 붓은 가볍게 움직여 굽는 것이 특징이다. 두툼한 옷, 건포 등의 의습선을 표현하는데 사용되었다. 열여덟 번째, 감필묘는 의문의 기본 필수를 무시하고 최소화시키는 표현방법으로 사의적인 인물화나 신선도의 의습선으로 많이 활용²⁾³⁾되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전통적인 동양화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18종의 의습선은 사유적이며, 관념적이라

는 동양화에 대한 인식에 반하는 부분으로서, 문인화적인 부분이나 대다수 동양화의 관념적 정서가 모든 동양화의 표현에 있어 확일적으로 반영되었다는 시각에 일침을 가하는 부분으로 동양화 내에도 의습선과 같은 사실성에 기초한 경험적이고 분석적인 콘텐츠가 무수히 함축 내포되어있음을 인식하여야겠다.

표 1. 동양의 18종 의습묘법

고고유사묘	금현묘	철선묘
행운유수묘	마황묘	정두서미묘
혼묘	꺾두정묘	조의묘
절로묘	감람묘	조핵묘
유엽묘	죽엽묘	전필수문묘
고시묘	구인묘	감필묘

아래 [그림 1]은 사티로스의 암포라로 기원전6세기경 고대 그리스의 도자기인데, 가운데 인물의 의습선에서 우리는 금현묘와 고고유사묘의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그리스와 로마 미술에서 의습선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아이템은 도자기에 그려진 문양으로 동

2) 서제섭, 인물화, 형설출판, 1999, pp.124~129

3) 김성희, '인물 특성과 의상에 따른 조선 후기 인물화 묘법', 2010, pp.13~20

양의 전통적인 18종의 묘법에서 보여지는 선묘의 특징을 서양 미술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예이다.

그러나 중세를 거쳐 르네상스로 이어지면서 이러한 현상은 둔화되기 시작하는데, [그림 2]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성가족과 성요한에서 볼 수 있는 묘사법을 동양적인 묘법으로 치환해 설명하면 고고유사묘와 조의묘로 대체할 수 있으나, 이미 이 시기의 서양화는 명암법에 의한 입체감과 공간감이 중시되었던 시기로 선묘는 작품의 밑그림을 그리는데 활용되는 경향이 강하였다. 따라서 서양화에서의 의습선은 동양의 의습문의 체계보다는 작가의 성향이나 작품의 독창적인 면모로써 활용되는 특징을 보인다.

그림 1. 사티로스 암포라
(B.C 6세기)

그림 2. 성 가족과 성요한
(1507~1508)

실제로, 현대 서양화에서 나타나는 의습선의 표현적 특징은 일반적으로 [그림 3-그림 6]서와 같이 화가의 독창적인 스타일과 성향을 기초로 이루어짐을 볼 수 있다.

일례로 선의 묘사법이 독특한 독일 표현주의 화가 키르히너나 굽은 선묘가 특징인 루오, 입체파의 거장 피카소, 개성있는 드로잉 선으로 많은 인물화를 그렸던 에곤 쉘레의 경우만을 예로 들더라도 서양화에서 보여지는 의습선의 특징은 의복의 실루엣과 소재의 물성적 특성에 관한 연출보다는 작가의 개성 표현에 더 주목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림 3. 키르히너,
드레스덴의 거리

그림 4. 루오,
씨커스 소녀

그림 5. 피카소,
도라마르의 초상

그림 6. 에곤쉘레,
인물화

III. 20세기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1. 1900~1924년대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20세기 초,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은 과도한 장식과 경직된 모델의 포즈처럼 미학적으로는 정체된 시기였다. 아메리칸 보그(1892), 하퍼스 바자(1867), 그리고 영국의 더 킨(1861)과 같은 하이패션 잡지에서 일하는 일러스트레이터들은 다소 현학적이고 복잡하게 의복을 묘사함으로써 전통을 고수했으며, 20세기 초부터는 잡지에 사진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푸아레는 'Les Robes de Paul Poiret'를 발간해 젊은 아티스트들과의 협업을 통해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렸다. 일례로 프린트 텍스타일을 디자인한 Raoul Dufy나 일러스트레이터 Paul Iribe, Georges Lepape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후, 1912년 Lucien Vogel이 'Gazette du bon ton'을 발행했으며, Ecole des Beaux Arts 출신의 젊은 예술가를 고용하고, 잡지에 영향력이 있었던 당대 7대 꾸뛰르 하우스(Poiret, Chéruit, Doeillet, Lanvan, Doucet, Redfern 그리고 Worth)와의 재정적인 협력 아래 1912년부터 1925년까지 가장 영향력 있는 패션 매거진으로 탄생하였다. 또한, 보그의 발행인 Condé Nast 역시 일러스트레이션 부문에서 커다란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Pierre Brissaud, André Marty, Charles Martin, George Barbier, Pierre Mourgue와 같은 다수의 Gazette 팀원이 보그의 일러스트레이터⁴⁾로 활동했다.

4) Cally Blackman, 「100 years of Fashion Illustration」, Laurence King, 2007, pp.8~11.

2. 1925-1949년대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황금기로 불리는 1920-30년대, 보그의 Nast는 'Gazette du bon ton'으로부터 강한 인상을 받아 보그에 일러스트레이션 지면을 늘렸으며, Helen Dryden, George Wolf Plank, Georges Lepape, J. C. Leyendecker, Eduardo Benito, Charles Martin, Pierre Brissaud, André Marty, Mario Simon과 같은 일러스트레이터가 활동하였다.

그러나 보그의 근본적인 목표는 독자에게 최대한 유용하고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었으며, 보그의 세련미 창출을 위해 사진을 뛰어넘는 일러스트레이션의 가치에 대해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다.

이후, 30년대 초 이미 사진의 보고 능력이 인정되면서 사진이 더 우월한 것으로 평가되기 시작했다.

1932년, Edward Steichen는 수영복 입은 여성의 컬러 사진 표지를 최초로 출판하였고, Nast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1936년까지 보그 가판대 판매율은 사진표지가 더 좋은 성과를 보였으며, 이후, 일러스트레이션은 주로 내부 페이지에만 활용⁵⁾되었다.

3. 1950-1974년대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60년대, 잡지출판계에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은 계속 몰락하였으며, 이따금씩 출판되었는데, 발행된 일러스트레이션에는 René Bouché, Alfredo Bouret, Tod Draz, Tom Keogh와 영국의 Eric Stemp, John Ward and Audrey Lewis와 같은 아티스트들의 작품이 포함되어 있었다. René Gruau와 함께 마지막으로 남은 구시대의 일러스트레이터였던 칼 에릭슨과 Bouché가 1958년과 63년에 사망했으며, 점차적으로 일러스트레이션은 언더웨어나 액세서리 등의 광고를 위한 것으로 한정되어갔다. 특히 Nova, Queen과 같은 새롭고 고급스러운 잡지에서 일하는 아트 에디터는 사진을 통해 신천지를 개척했으며, 포토그래퍼와 모델들이 새로운 유명인사로 부상했다.

이후, 60-70년대의 L'Officiel de la mode et du couture, International Textiles and Sir과 같은 업계 지들이 Gruau, Constance Wilbaut, Tod Draz와 같은 당

대 최고의 일러스트레이터들을 채용했으며, 60년에 개편한 뉴욕의 WWD는 미국 의류산업을 위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면서 안토니오 로페즈와 같은 당시의 룩과 느낌을 포착해낼 일러스트레이터 팀을 고용⁶⁾했다.

4. 1975-2000년대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20세기 후반,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은 80년대의 재전성기까지 고군분투했다. 새롭게 등장한 아티스트들은 La Mode en peinture(1982), Condé Nast's Vanity (1981), Visionaire(1991)와 같은 잡지들에서 해방구를 발견했으며, 일러스트레이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은 광고 캠페인으로 이어졌다. Gladys Perint Palmer, Jo Brocklehurst, Claire Smalley, Shari Peacock, Jason Brooks, Julie Verhoeven와 같은 패션 일러스트레이터가 꾸준히 배출되었으며, Wallpaper와 같은 영향력 있는 간행물을 통해 패션과 불가분의 관계인 '라이프스타일' 일러스트레이션이 크게 부상했다.

또한 컴퓨터 이미지가 갖고 있는 융통성과 접근성, 그리고 친근성은 사진과 예술 사이에 자리함으로써 보는 사람과 제작된 이미지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가능하게 했으며, 일러스트레이션과 사진 그리고 컴퓨터 그래픽을 혼합하여 그 경계를 무너뜨렸다. 컴퓨터 그래픽이 사진과 동등한 위치에서 모든 분야의 시각 매체를 지배하게 되는 동안,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와 같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등장으로 전통적인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부활이 증명되었다는 사실은 꽤나 아이러니하다.

밀레니엄의 도래에 이르러 패션 일러스트레이터들은 스타일에 관한 영감을 얻기 위해 과거 대가들을 돌아보게 되면서 전통적인 수작업 일러스트레이션은 계속해서 부활을 예고해왔으며, David Downton과 같은 아티스트들에 의해 그 영향력은 지속⁷⁾되고 있다.

IV. 20세기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의습선

1. 1900-1924년대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의습선

20세기 초의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의습선은 대체

5) ibid pp.70~73.

6) ibid pp.166~169.

7) ibid pp.258~261.

로 평면적인 배경처리로 대상을 묘사하고 그 바탕위에 가는 선묘로 의습의 특징적인 부분을 묘사한 것이 대부분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으며, 이러한 묘사법은 동양의 전통적인 의습선과 많은 점에서 유사함을 보인다.

그림 7. Paul Iribe

그림 8. Georges Lepape

[그림 7]는 1908년 Iribe의 폴 푸아레가 디자인한 엠파이어 스타일의 튜블러 실루엣의 가운데이며, [그림 8]은 1914년 Lepape가 그린 푸아레의 램프 형태 튜닉과 호블 스커트인데, 평면적인 바탕에 금현묘와 같은 가늘고 긴 선묘를 사용하여 드레스의 유연한 느낌을 묘사하고 있다.

그림 9. Valentine Gross

그림 10. Helen Dryden

[그림 9]는 1915년 Gross의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철선묘, 행운유수묘, 금현묘와 같이 뽀뽀한 의습선, 거문고 현처럼 짙은 의습선, 유연하게 움직이는 고불고불한 의습선의 선묘가 특징이다. [그림 10]은 Dryden의 1922년 보그 표지 일러스트레이션으로 행운유수묘와 같이 부드럽게 흐르는 유연한 선묘가 특징이다.

2. 1925~1949년대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의습선

2 차대전을 전후로 한 시기의 패션은 과거에 비해 훨

씬 더 활동적이고 기능적인 스타일로 변모하였으며, 이 시기의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또한 평면적인 바탕위에 선묘적인 표현이 두드러졌던 20세기 초기에 비해 입체적인 느낌을 살리는 일러스트레이션이 다수 등장하였고, 의습선의 표현도 다양해짐을 볼 수 있다.

그림 11. Porter Woodruff

그림 12. Hemjic

[그림 11]는 Woodruff의 1929년 작품으로 아메리칸 보그에 실린 파투와 비오네의 이브닝 랩 드레스이다. 날카로운 철선묘와 부드럽게 떨어지는 금현묘, 고고유사묘와 같은 의습선에서 드레스의 물성을 유추할 수 있으며, 명암의 표현으로 평면적인 느낌과는 다른 분위기를 연출한다. [그림 12]은 Hemjic의 1929년 작품으로 트위드 소재의 수트를 묘사하고 있는데, 부드러우면서도 굵은 선묘는 모섬유가 가지는 특유의 의습선을 잘 나타내고 있으며, 동양의 의습선에서는 찾을 수 없는 선묘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3. Lee Creelman

그림 14. Carlos Sàenz de Tejada y de Lezama

[그림 13]은 Creelman의 32년 작으로 구인묘와 같은 둥근 느낌의 의습선과 외곽선의 표현이 특징이다. [그림 14]는 Carlos Sàenz de Tejada y de Lezama의 1937년 작품으로 명암의 표현과 더불어 철선묘와 유염묘적

인 표현이 특징인데, 두 작품 모두 20세기 초기에 비해 입체적인 느낌의 복식 표현과 가는 선묘에서 다양한 운필법으로 바뀌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1950~1974년대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의습선

사진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일러스트레이션은 과거의 황금기에서 벗어나 침체기로 접어들기 시작했으나 독창적인 작가의 필치와 스타일은 이전에 비해 훨씬 더 풍부하고 다양해졌으며, 의습선의 표현 또한 개성있는 선묘의 표현과 운필법으로 다채로워졌다.

그림 15. Ren Bouch 그림 16. Constance Wibaut

[그림 15]은 René Bouché의 53년 작품으로 철선묘와 같은 스커트의 의습선에 담묵의 수채화가 고아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그림 16]은 Wibaut의 55년 발렌시아가의 여름 스타일로 판화와 같은 분위기의 독특한 작가의 스타일이 돋보이는 일러스트레이션이다.

그림 17. Setsu Nagasawa 그림 18. Rene Gruau

[그림 17]은 Nagasawa의 60년작, 서양식 드레스를 입은 일본 여성으로 동양적인 분위기의 미적 정서가 돋보이는 작품으로 수묵화의 느낌을 살린 패션 일러스트

레이션의 감성적인 의습선 표현이 특징이다. [그림 18]은 독일 보그에 실린 디올의 디자인으로 디자인된 지 20년 후, Gruau의 일러스트레이션으로 해석된 작품이며, 굵은 필선과 갈필의 운필법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4. 1975~2000년대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의습선

20세기 후반의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은 그 간의 침체기에서 벗어나 재도약하기 시작했으며, 많은 작가들이 개성 넘치는 작품으로 독창적 스타일을 연출하였다.

그림 19. Jo Brocklehurst 그림 20. Antonio Lopez

[그림 19]은 Brocklehurst의 82년 작품으로 자유로운 드로잉 선으로 핑크적인 패션 스타일을 표현한 작품, 가는 실선의 역동적인 선묘가 특징이며, [그림 20]은 Antonio Lopez의 작품으로 93년도 큐비즘에 대한 오마주로서 개성적인 의습선의 표현법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1. Joe Eula

그림 22. Ty Wilson

[그림 21]은 Eula의 87년 작으로 80년대의 파워드레스의 강한 느낌을 혼묘를 사용해 거친 필치로 표현했다.

[그림 22]은 Wilson의 88년 작으로 알버트 니폰의 의상을 활달하면서도 시원한 선묘로 감필하여 연출했다.

[그림 23]은 Paul Block의 99년도 작품, 담묵에서 농

묵으로 이어지는 굵은 선묘가 특징적이며, [그림 24]는 Stipelman의 91년 작으로 갈필법의 장점을 트랜스퍼한 기능으로 활용하여 짙은 버건디의 바탕위에 풍성하면서 서도 뽀뽀한 드레스의 의습선을 개성있게 표현했다.

그림 23. Kenneth Paul Block

그림 24. Steven Stipelman

V. 결론

사진기술의 발달은 한 때 융성했던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판도를 바꾸어 놓았으며, 컴퓨터 기술의 발달은 사진이 갖는 한계성을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토대로 재편집하기에 이르렀다. 실제로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와 같은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이 활성화되고 있는 오늘날 실사의 복제판으로서의 사진은 많은 부분 그 본질적인 매력을 상실하였으며, 이제 사진과 일러스트레이션은 컴퓨터라는 매체를 통해 그 경계의 벽을 허무는 상황에 이르렀고, 이러한 현상은 과거 전통적인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이 갖는 표현적인 특징에 고무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 같은 시대적 요구를 기초로 20세기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서 나타난 의습선에 대한 표현적 특징에 관하여 연구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 첫째, 20세기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의습선에 있어서도 동·서양의 시공적 차이를 넘어서 운필에 관한 선적인 표현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의 유사성을 찾을 수 있었으며, 둘째, 20세기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 대한 변화와 흐름은 사진이라는 매체를 토대로 1차적인 침체기로서의 외형적 변화가 있었으며, 컴퓨터 프로그램의 발전과 현대인의 아날로그적인 감성적 취향의

고조로 2차적인 내적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끝으로, 20세기의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서 나타난 의습선의 표현적 특징은 다음과 같은데, 20세기 초기는 평면적인 배경위에 가는 선묘적 표현이 특징이었으며, 20세기 중후기는 입체적인 배경과 함께 좀 더 유동적인 선묘가 두드러졌으며, 20세기 중후기는 다채로운 드로잉 선의 표현과 운필법의 다양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20세기 후기는 작가의 개성이 두드러진 운필법과 독창적인 스타일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표현방식에 있어서 다양성이 극대화되어졌음을 인식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21세기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성장에 관한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다. 끝으로, 후속 연구에 관한 제언으로 의습선에서 나타난 표현적 특징을 토대로 패션일러스트레이션 분야에 관한 사조에 대하여 연구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로 여겨지며 심도있는 후속 연구를 기대하는 바이다.

참고 문헌

- [1] 서제섭, 인물화, 형설출판사, 1999.
- [2] E.H. 콰리치, 서양미술사, 열화당, 1996.
- [3] 동아출판사편집국, 세계미술전집, 동아출판, 1990.
- [4] 국제교육개발원,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국제패션문화사, 1991.
- [5] Cally Blackman, 100 years of Fashion Illustration, Laurence King Publishing, 2007.
- [6] 김성희, “인물 특성과 의상에 따른 조선후기 인물화 묘법”, 한패션연구센터, 제3권, 1호, pp.13-20.

저자 소개

윤을요(Eul-Yo Yun)

정회원

- 2006년 2월 :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대학원 퓨전디자인과(디자인학 박사)
 - 2007년 3월 ~ 현재 : 국민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패션일반, 패턴구성